



로크스카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로크스카이는 지난 11일 한국장애인환경실천협회 광주지부와 함께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쳤다.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출범
광주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최근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강당에서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지역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무등클럽 18·19대 회장 이·취임식

(사)전문직여성·한국연맹(BPW) 무등클럽은 지난 9일 광주 금다연에서 제18대 손안상 회장과 제19대 엄옥란 회장의 이·취임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제18대 손안상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전문직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지구살리기 운동을 실천했다”면서 “국제여성인권지원사업으로는 미얀마여성 중간리더십 지원사업인 재봉틀 기증 프로젝트를 통해 미얀마 취약계층 여성 자립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19대 엄옥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역대 회장들의 여성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의 성과를 잇고 팬데믹 시대에 맞서 전문직 여성들의 역할을 더 발휘해 차세대 여성 지도자 발굴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재학생 임하늘·김화평씨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됐다.

BPW한국연맹무등클럽은 1986년 창설된 여성단체로 전국 24개의 클럽과 연대중이다.

BPW 무등클럽은 미얀마 여성을 위한 재봉틀보내기 운동과 차세대 여성 진로지도&멘토링 등을 펼쳐오고 있다. /김민빈 기자



광산구 ‘수완동민의 날’ 기념식

문화체육센터 개관식도

광주 광산구 수완동이 지난 10일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영장에서 수완동 개성 11주년을 기념해 수완동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중계를 병행한 비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주인 실무추진위원회가 기획한 축하 무대와 유공구민 표창 및 수완동민의 상 수여, 장학금 전달 등과 함께 주민총회도 진행됐다.

주민총회에선 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의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박대규 수완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수완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주민들에 감사하다”며 “인구 8만대 동에 걸맞은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인사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의료기기 연구단장 김석주
▲기획조정본부장 진병문 ▲경영지원본부장 조현길

제11회 여수국제미술제 문리 전시예술감독

중국·대만·홍콩·인도네시아 작가 대거 참여
“아 내가 위로받았구나” 하는 느낌 누릴 것”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여수국제미술제는 흐르는 것은 물만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우리 사회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생력을 잃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과 복원력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드러낼 것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여수국제미술제 문리 전시예술감독의 설명이다.

문리 전시예술감독은 “이미 정평이 난 여수국제미술제는 서구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고 또 아시아의 기상을 불러 들여 한국과 아시아가 곧 중심임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차피 세계는 지금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문 감독은 이를 여수국제미술제 전반에 녹여 내기 위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한껏 가동했다고 귀띔했다.

자신이 예술가이자 기획자로서 중국과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현장 작가’들을 초청, 미술 자체를 포함해 지구촌 변화의 중심인 아시아 현대 미술을 행사 전체에 투영하고 있다.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각 부스에는 폭력으로 얼룩진 현대사회의 상처, 전쟁의 참화에 휘둘리는 인간 군상, 그리고 치유의 공간.

문 감독은 “이러한 공간에 처음 들어서 는 관객들은 무겁고 전지기 힘든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지나면서 서정성 짙은 호남의 너른 들에 안감과 동시에 ‘아 내가 위로 받았구나’ 하는 느낌을 누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미술로 발현하는 사람들은 물론 관객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슴 속에 담아가고 그 희망은 맹목적인 판타지가 아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강을 건너 왔구나, 이 통로가 끝나면 이다음 나의 발걸음을 무엇이며 어디로 옮겨가야 할까’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사를 주관한 여수시와 여수지역 작가, 여수시민들에게 “대형 국제행사를 해마다 주저 없이 치를 만큼 여수는 이미 국제예술도시이고 이를 토양으로 삼은 지역작가들의 창작동력, 시민들의 자부심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예술감독은 아시아 현대미술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구축한 예술가·기획자들과의 연대가 강력하고 두터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의 주체적 시각으로 아시아 현대미술을 늘 바라보고 있다. 기획 전시 및 창작스튜디오의 인적교류로 연대를 강화하는 ‘아시아 지도리 프로젝트’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독심 있게 추진하면서 아시아권 14개국 124명의 국내외 미술가를 초대, 전시회를 갖고 진두지휘했다.

제11회 여수국제미술제는 오는 10월 3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전시홀 D 1~D4와 야외공원에서 열린다.

/우성진 기자



‘THINK TANK 희망전진대회’ 성료

트럼프·아베·훈센 등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 서밋 조직위 출범도

민간단체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통일 물꼬를 뜨기 위해 나섰다. 천주평화연합(이하 UPF)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12일 온라인으로 세계 194개국 20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HINK TANK 2022 희망전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으며, 한반도 평화 SUMMIT 조직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다.

한학자 총재는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시작한 신대평양문화가 전세계로 펼쳐 나가 공생·공영·공의의 참사랑 운동, 참가정 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남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여했다”며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UPF 평화비전에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THINK TANK 2022 희망전진대회가 큰 힘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기조연설자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교훈을 통해 평화실현은 분쟁국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위기해결 및 평화구축 활동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참여한 이웅섭 광주시장은 “갈등과 대립의 한반도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길에 광주도 힘과 지혜를 더하겠다”며 “광주다운 남북협력사업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100원회 특별장학금 570만원 전달

비대면 방식 계좌 입금...중·고·대학생 23명 혜택

사회봉사단체인 100원회가 가장 형편이 어려운 모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100원회는 12일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 황룡강친수공원 광장에서 대학생 11명과 중·고등학교 12명을 대상으로 총 57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들 장학생은 광주시 산하 5개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됐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2학기 신학기를 맞아 전달됐다.

100원회는 올해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중·고·대학생 1,07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1억8,11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금을 받은 임하늘씨(호남대 외식조리학과 2년)는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정성으로 장학금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을 통해 반드시 꿈을 이뤄 할 상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봉사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100원회 장학금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날’에 전달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전달됐다.

김희만 100원회 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비 모금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 자신에게 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 40만원과 25만원까지도 부족한 학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김희만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나누는 즐거운 마음 하나로 변함없이 기부를 실천하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100원회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밝게 만들어가는 풀뿌리 나눔 문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일림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분만 혜택과 상담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면접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지자체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정신건강·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서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 시 비용지원. 1577-8339, 국번없이 13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 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10-8602-0001.

▲사랑애돌봄사업단=장애인 행동 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파견사업진행, 대상 서구구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 351-3029, 광주 서구지역지원센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국번없이 1366.